

“여성활동 社會 전반 확산이 꿈”

權 英 子 정무 2 장관



權英子정무 2 장관

기구 유엔전문기구등에 여성지위의 향상을 촉구하며 여성발전사업을 위한 조정 업무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져야 할 의무는 2000년까지 각 분야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 이뤄져야 할 3백72개 항목을 규정한「나이로비 전략」, 여성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인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등을 이행하는 것.

權장관은『지난 1월 여성지위 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걸맞지 않게 여성의 정치 사회 참

『세계여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러있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5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피선을 계기로 열린 「유엔에서의 여성활동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초대석

“유엔 「여성위원國」 被選계기 정책 개발”

權英子정무제 2 장관은『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한보다 「여성지위향상」이라는 책임과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전문기능위원회로 발족한 유엔 여성사업의 핵심기구. 현재 45개국을 위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간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옵서버 국가였다가 지난 4월 29일 '위원국으로' 피선됐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등 각부문에서 세계 여성들의 지위를 점검해보고 건의문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정부 비정부

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면서『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고용 교육 정치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탁아 고용문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발등이 權장관이 우선 힘을 쏟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최근 취임 1백일을 갓 넘긴 소감을『바쁘게 보내면서도 숙제를 덜 한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한 權장관은『삶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金熹暻)